

가정 예배 모범

- 2020_11_22_장기중앙교회

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함께 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

=> 우리 가족을 항상 말씀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

우리 가족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.

▶ 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

=>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(새찬송가 569장)

▶ 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

=> 역대하 18:12-27

▶ 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

1)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해를 당할까 무서워 그가 듣기 좋은 말만 할 때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까? (13절)

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.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인간 왕 아합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분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.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?

2)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까? 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? (16절)

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자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합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. 하지만 그 목자가 양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이용하고 있기에 목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.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. 가정의 부모님 학교의 선생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,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.

▶ 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

▶ 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